

KISTEP 통계 브리프 2008-21호

세계 경제의 흐름

(국제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중심으로)



세계 경제의 흐름

[국제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중심으로]

KISTEP 정보분석팀

2007년 OECD의 「Science,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」의
주요 내용을 정리 · 분석함

1. 개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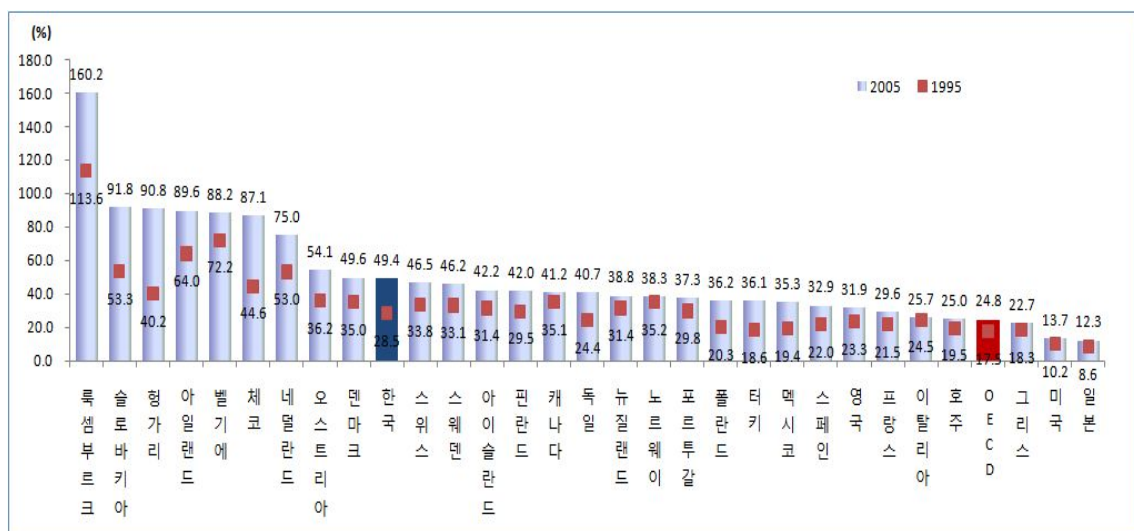
- OECD의 「Science,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」는 지식 기반경제와 세계화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분석함
 - OECD, 과학기술산업국(DSTI : Sirectorate for Science, Technology and Industry) 산하 경제분석통계과(EAS : Economic Analysis and Statistics Division)에서 과학기술지표작업반(NESTI)의 각종 통계정보를 받아 조사 분석을 수행한 결과물을 보고서로 2년 주기로 발표함
 - 2007 STI Scoreboard(Science,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)에서 다루어진 주요 정책 이슈는 R&D와 지식의 투자, 과학기술인력, 혁신 정책, 혁신성과, ICT(정보통신), 특정 기술(바이오, 나노 등), 과학기술의 국제화, 세계경제흐름, 생산성과 무역임
- 본 자료는 2007 STI Scoreboard의 주요 정책 이슈 중 세계 경제의 흐름 부문을 국제 무역과 외국인 직접 투자(FDI) 흐름, 수출품의 중간재 아웃소싱으로 나누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정리 · 분석함

2. 주요 내용

□ 국제 무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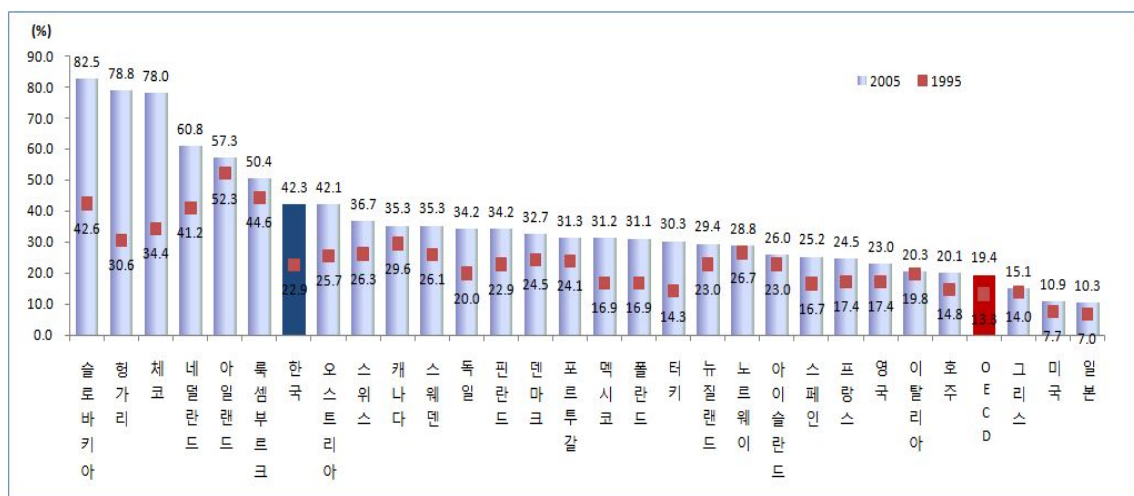
- 200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49.4%로 1995년(28.5%)보다 20.9%p 증가함
 - 이는 2005년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수출입 비중(24.8%)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임
- 2005년 OECD 국가들 중 룩셈부르크(160.2%), 슬로바키아(91.8%), 헝가리(90.8%)의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90.0%를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
 - 반면, 미국(13.7%)과 일본(12.3%)의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인데, 이는 GDP 규모가 거대하여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임

[그림 1] 주요국 GDP 대비 수출입 비중(2005년)



- 2005년 OECD국가들의 GDP 대비 상품 수출입 비중은 1999년 13.3%에서 19.4%로 6.1%p 상승하여 전체 수출입 비중과 유사한 증가를 보임
-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품 수출입 비중은 42.3%로 1995년대비 19.4%p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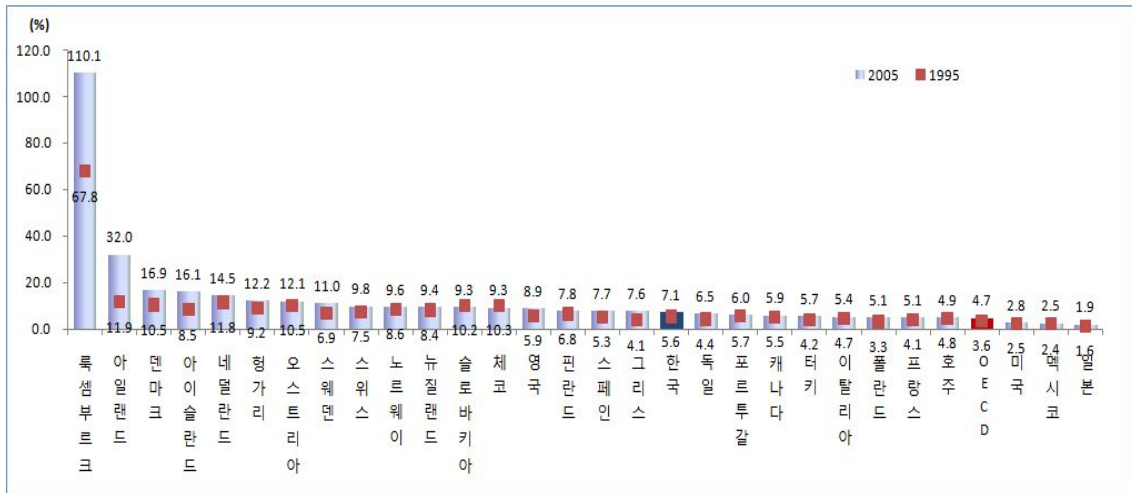
[그림 2] 주요국 GDP 대비 상품 수출입 비중(2005년)



* OECD에서 벨기에는 제외됨. 멕시코는 2004년 자료로 OECD 평균에 영향을 줌

- 2005년 OECD 국가들의 서비스 수출입 비중은 GDP 대비 4.7%이고, 이는 1995년 3.6%에서 1.1%p 상승한 수치임
- 200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서비스 수출입 비중은 7.1%로 OECD 평균보다는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지만, 상품 수출입 (42.3%)의 1/6 수준에 불과함
- 룩셈부르크는 GDP 대비 서비스 수출입 비중이 110.1%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음

[그림 3] 주요국 GDP 대비 서비스 수출입 비중(2005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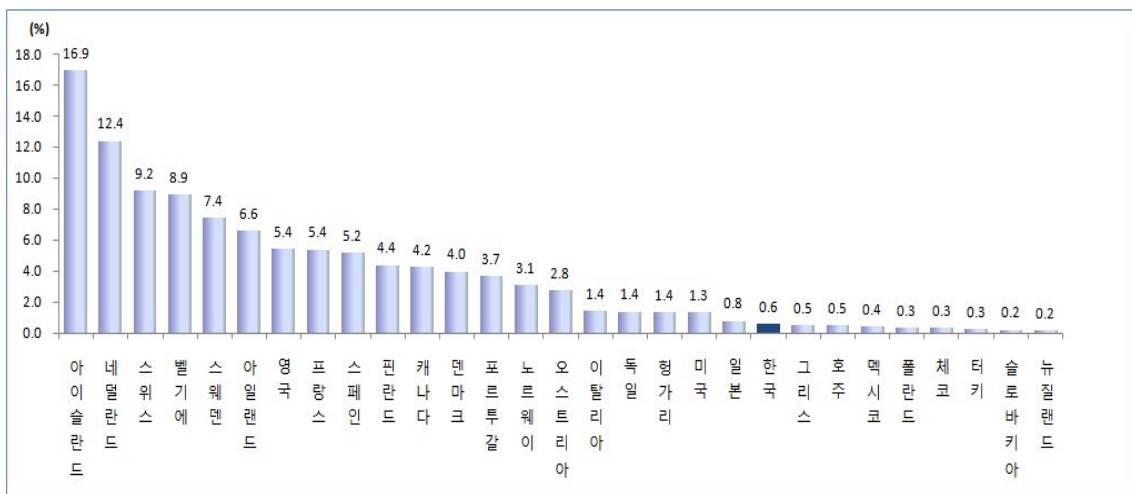


* OECD에서 벨기에는 제외됨. 멕시코는 2004년 자료로 OECD 평균에 영향을 줌

□ 외국인 직접 투자(FDI) 흐름

- 2000~2005년 우리나라는 OECD 지역으로 GDP 대비 0.6%의 투자 유출을 보이고 있으며, 이는 OECD 국가들 중 중하위권에 속하는 비중임
- 아이슬란드가 GDP 대비 16.9%를 투자하여 가장 높은 유출 비중을 나타냈으며, 네덜란드(12.4%), 스위스(9.2%) 순으로 나타남

[그림 4] GDP 대비 평균 FDI 유출 비중(2000~2005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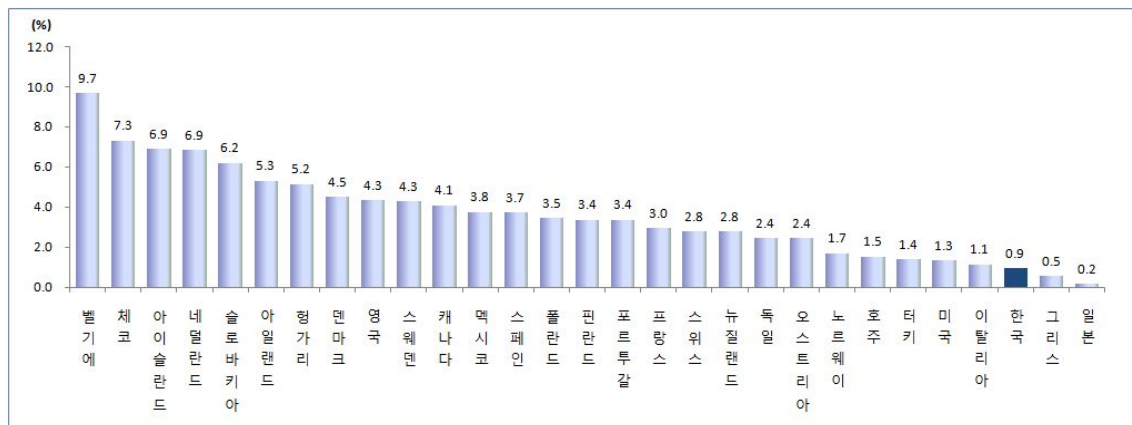


* OECD지역에서의 FDI 기준임

* 벨기에는 2002~2005년, 캐나다는 2000~2003년, 멕시코는 2001~2004년 자료임

- 2002~2005년 우리나라는 OECD 지역에서 GDP 대비 0.9%의 투자를 받아 유출 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았으나, 유입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일본(0.2%), 그리스(0.5%)와 함께 최하위권에 속함
- 동기간 벨기에(9.7%), 체코(7.3%), 아이슬란드(6.9%), 네덜란드(6.9%), 슬로바키아(6.2%)는 GDP 대비 평균 6.0% 이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음

[그림 5] GDP 대비 평균 FDI 유입 비중(2000~2005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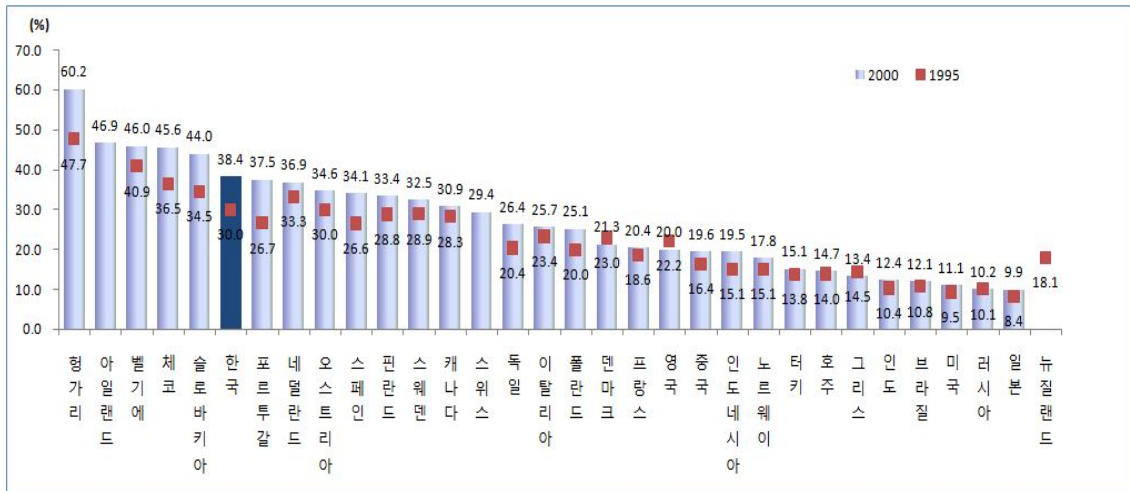
* OECD지역에서의 FDI 기준이고, 벨기에는 2002~2005년, 캐나다는 2000~2003년 자료임

□ 수출품의 중간재 아웃소싱¹⁾

- 2000년 우리나라 수출품 생산과정에서 중간재의 아웃소싱 비중은 38.4%로 1995년 30.0%에 비해 증가함
- 헝가리(60.2%)와 아일랜드(46.9%), 벨기에(46.0%)는 수출품 중간재의 아웃소싱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며, 반대로 일본(9.9%)과 미국(11.1%)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비중을 나타냄

1) 수출품 생산 과정에서 중간 투입물의 수입되는 항목을 의미함

[그림 6] 수출품의 중간재 아웃소싱 비중



* 2000년 자료 중 호주, 아일랜드, 터키, 인도는 1998년, 그리스, 포르투갈은 1999년, 노르웨이, 스위스는 2001년 자료이고, 1995년 자료 중 호주는 1994년, 캐나다, 덴마크, 노르웨이는 1997년, 헝가리는 1998년, 뉴질랜드, 터키는 1996년, 인도는 1993년 자료임

3. 시사점

- 200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서비스 수출입 비중은 7.1%로 상품 수출입 비중(42.3%)보다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 중 낮은 수준임
 - 향후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
- 2000~2005년 동안 우리나라는 OECD 지역으로의 투자가 GDP 대비 0.6%였으며, 투자 유치 비중은 0.9%에 불과함
 - GDP 대비 외국인 직접 투자(FDI)의 흐름은 세계화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요소로 판단 될 수 있음
 - 따라서, 우리나라는 외국으로의 직접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한편, 외국 R&D 센터 유치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
- 2000년 우리나라 수출품 중간재의 수입 아웃소싱 비중은 38.4%로

주요 선진국인 일본(9.9%)과 미국(11.1%)에 비해 높은 편이고, 부품
소재산업의 외국의존도가 높음

- 향후 수출품 중간재의 아웃소싱 및 부품소재 산업의 자립도를
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이나 대체재 개발 등 기업과 정부의 다
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

* 자료원 : OECD, Science, Technology and Industry 2007

* 자료관련 문의 : 정보분석팀 (02-589-2892, 김용희)